

## ‘광주형 일자리’ 법인 설립 속도

오늘 투자금 입금 마무리...21일 총회 개최  
이달 법인등기 등 완료...올해 말 공장 착공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총회가 21일 개최된다. 광주시는 2021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이달 법인등기 등 절차로 마무리하고 올해 말 공장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20면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투자협약을 맺은 투자자들은 이사회 결정 등 내부 절차를 마무리짓고 19일까지 투자금 입금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금이 완료되면 곧바로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고, 21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합작법인 명칭과 대표이사·임원을 선정한다. 명칭은 다수의 후보군을 선정하고 시정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결정한다.

광주형은 합작법인 설립 비용 자기자본 2,300억원 중 1대 주주인 광주시(광주 그린카진흥원) 483억원(21%), 2대 주주인 현대차 437억원(19%)에 이어 260억원(11%)로 3대 주주로 참여하게 됐다.

광주시와 광주은행의 지분이 30%를 넘어섬에 따라 광주형일자리 자동차사업에 지역민과 지역노조의 의견이 앞으로의 결정에 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합작법인을 출범시키고 올해 말 공장 착공, 2021년 완공·양산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를 비롯해 금융기관, 지역기업 등이 합작법인에 2,300여억원을 투자한다. 나머지 자금 3,454억원은 재무적 투자자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사업은 합작법인이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설비를 구축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정규직 1,000여명을 고용하는 내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공장의 초기 경영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조건없는 투자자를 바랐지만, 투자협약을 맺은 일부 투자자가 조건을 내걸어 빠졌다”며 “투자금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고 8월에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광주형일자리가 본격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2019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대회 폐막식이 18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가운데 이용섭 대회조직위원장 겸 광주시장이 모하메드 디움 국제수영연맹(FINA) 부로 리에종에게 대회를 반납하고 있다. /조직위 제공

## 평화의 물결 전 세계로...“후쿠오카에서 또 만나요”



지구촌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 2019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가 18일 오후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2면

지난달 12일부터 31일(선수권 17일, 마스터스 14일) 동안 전 세계인들을 뜨겁게 열광시켰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는 다음

광주 마스터즈대회 폐막... ‘수영도시 광주’ 발돋움

후쿠오카 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폐막식은 이용섭 대회조직위원장, 조영택 사무총장, 모하메드 디움 FINA 부로 리에종, 도린 티보즈 FINA 마스터즈위원장, 선수단, 시민 등 1,000여명이 함께 했으며, 공식행사와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폐막식 주제는 ‘다 함께 하나 되

어’로, 전 세계 마스터즈 선수들과 대회를 위해 땀 흘린 모두가 빛의 도시 광주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빛난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광주 시민들이 모여 민주평화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온 세계에서 모인 물방울들이 거대한 물결기로 변해 미래의 바다로 함께 향하자는 메시지를 포함했다.

이용섭 대회조직위원장 겸 모하메드 디움 국제수영연맹(FINA) 부로 리에종이 직접

무대로 나가 대회성공 주역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 위원장은 공근 의장대가 내린 대회를 국제수영연맹에 반납했다.

이용섭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광주는 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대회를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성공 개최함으로써 세계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썼다”며 “광주는 ‘수영도시 광주’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대한민국은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대회를 모두 개최함으로써 스포츠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황애란 기자

## 광주 도시철도2호선 내달 5일 첫 삽

광주 도시철도2호선 건설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오는 9월 5일 도시철도2호선 건설 기공식을 갖고 올 하반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지방 최초의 순환선이며,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

~광주역-전남대-점단을 지나 다시 시청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41.8km 규모다. 정거장 44곳과 차량기지 및 주차기지 각 1곳씩 건설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조 1,761억원(국비 60%, 지방비 40%)이 투입된다. /황애란 기자

## 전남도 ‘관광재단’ 설립 본격화

출자 운영위 용역보고서 의결

김영록 전남지사의 핵심공약인 지역관광재단기구 설립이 본격화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남도 지역관광산업 전담기구 설립방안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심

의·의결했다. 최종보고서는 “전남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객 현황이 비슷한 수준의 광역자치체 중 유일하게 관광전담기구가 없다”며 “관광산업의 인프라와 경쟁력이 열악해 체계적인 개발과 통합마케팅을 추진할 전담조직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초 자본금 형태로 출자된 10억원의 출자금과 5년간 106억원의 지원금 출연(재단운영비)을 포함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전남관광재단이 설립될 경우 향후 5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543억6,00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06억7,000만원, 수입유발효과 69억 2,000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파급효과는 732.6명의 취업(고용)유발효

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관광재단 인력운영은 법인조직 구성은 이사회와 사무처로 구분하고 이사회는 13인 내외로 이사장(도지사 겸임), 대표이사 1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영민 기자

**focus**  
DJ 10주기 추도식 ▶4면  
전남매일CEO아카데미 해외탐방 ▶16면

정상에 우뚝 서다!

열손가락 없는 장애를 딛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산악인 김홍빈 대장,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역경을 딛고 정상을 향한 끝없는 도전정신, 바로 중흥S-클래스의 정신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중 13번째 봉우리 가셔브롬 I (8068m) 정상에 오른 김홍빈 대장(2019. 7. 7)

www.s-class.co.kr

**중흥S-클래스**

목포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센텀뷰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7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 대상
- 2016 매일경제 ‘토목건축기술대상’ 건축부문 주거용 최우수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브랜드대상
- 2015 대한민국 고효율 친환경 주거 및 건축 기자재 대상 |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 2014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상